

제1회 정선 황기대축제

국화 향기 높은 가을날 아라리 가락에 맞춰 흥겹게 막을 올린 「제1회 정선 황기 대축제」. 10월 2,3일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에서 김원창 정선군수를 비롯 지역 유지등 내빈들과 생약재배농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황기 축제는 황기아가씨 선발대회, 황기요리 경연대회, 시음회, 국산약재 전시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을 당겼다. 이번 황기대축제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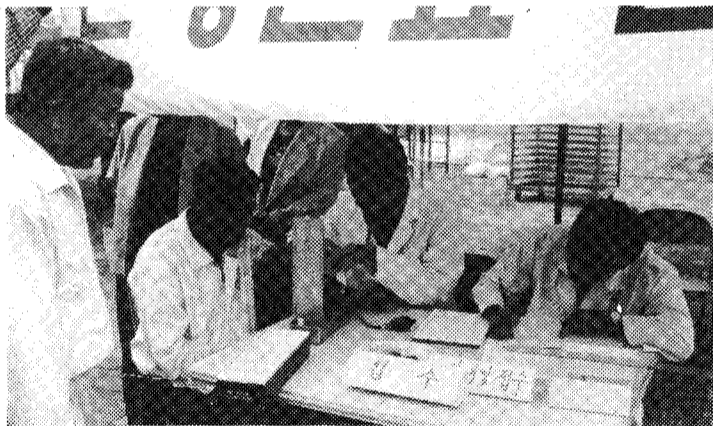
◇국내 최고령 김성술옹의 두번째 장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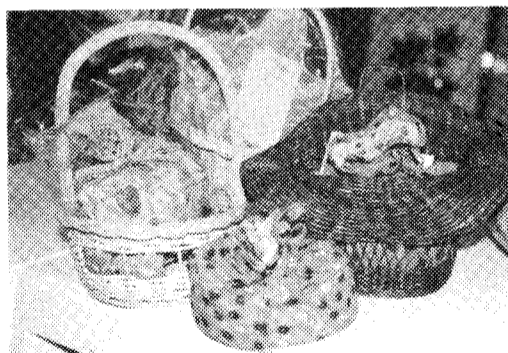
◇생약인들의 결의.



◇황기 백숙 요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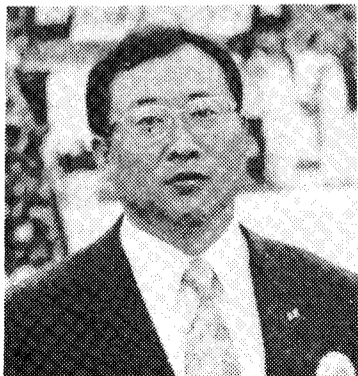


◇한방무료진료 장면.



◇생약재를 넣어 만든 방향제.

인터뷰



황기 대축제위원회 김진동위원장

『석회암과 점질토양의 산간 고령지에서 자란 정선황기는 그 품질과 효능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특산품』이라고 소개하는 황기 대축제 위원회 김진동 위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터”

원장(42). 그러나 최근 수입개방화와 더불어 황기의 밀수입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고령지 채소에 밀려 재배면적과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정선황기의 존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그는 안타까워 했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정선황기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 소비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생약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황기 주산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의도에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김위원장은 밝혔다.

『이번 처음 개최하는 정선황기 대축제는 앞으로 정선군의 생약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생약인 대축제로 승화시켜 정선아리랑과 함께 정선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선군 생약영농조합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한 김 위원장은 황기를 단순한 한약재 개념에서 탈피, 식품으로의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엔 생약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서울에 정선약초 직매장을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문>

양질의 약초 생산 결의

○...황기대축제 개최식에서 정선군 생약영농조합원 일동은 우리 약초의 재배확대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후 토질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 권장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약초재배 단지 조성사업에 앞장설 것과 생산한 약초는 적정가격에 유통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내 최고령 김성술옹 장수연

○...한편 이번 황기 대축제에서는 국내 최고령 김성술 옹(122)의 두번째 장수연이 개최돼 눈길. 올해로 1백22세의 국내 최고령의 김성술 옹은 강원 사북에 거주하는 45세의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지팡이 하나에 당당히 무대위로 걸어 나와 아직 건재함을 과시. 김영김씨 추이공파 26대손이라는 김옹은 특히 환갑이 훨씬 지난 72세에 큰 아들을 두었다는 사회자의 설명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료 한방진료

○...1박2일 축제기간 동안 정선한의원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 정선군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

이 모 저 모

았다. 진료는 차례로 접수 후 한의사로 부터 맥을 보고 약을 조제한 후 통증부위에는 침이나 뜸을 뜨는 순서로 진행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모처럼 아픈 부위에 뜸을 떠주니 시원하다며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줄 생각도 않고 이곳저곳을 내보이며 뜸을 더 떠달라고 해 의료진이 곤욕을 치르기도.

황기요리 경연대회

○...행사 둘째날인 10월 2일 황기요리 경연대회 시작을 몇분 앞두고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알맞은 비. 그러나 서늘한 가을비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의 요리 솜씨를 뽑내는 대회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출품된 황기요리는 황기죽발, 콩탕 황기백숙, 황기부침, 콧등치기 등 다양.

생약인의 밤

○...정선군내 생약재배 농민은 물론 전국의 생약인들이 함께한 한마당.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속에서도 화려하게 밤 하늘을 수놓은 서른일곱발의 축포와 함께 생약인의 밤은 아라리 가락으로 무르익어 갔다. 특히 풍년기원제와 함께 치뤄진 생약인의 밤 행사에는 윤수일, 설운도 등 인기가수와 사물패들이 축제 분위기를 군민 노래자랑으로 노래실력을 뽑내는 등 생약인이 함께 어

러졌다. 단, 지난 7월 수해피해와 최근 무장공비 출현으로 강원도 인근지역의 생약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

가을비 불구 요리경연장 "후끈"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매진